

법학 전문대학원 여학생 진로개발 지원

수행과제명 : 고학력 여성의 사업서비스업 진출 촉진방안

과제책임자 : 신선미 연구위원

Tel: 02-3156-7125, e-mail: @seonshin@kwidimail.re.kr

요 약

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단계에 여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하여 법무 서비스 분야에 여성 인력의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. 전공분야별 인턴 프로그램, 선배 법조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,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

1.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

- 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단계에 여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하여 법무 서비스 분야에 여성인력의 진출을 촉진함
- ☐ 법학전문대학원 여학생의 진로를 공공부문(법원, 검찰청, 정부부처, 기타 공공기관) 중심에서 변호사업, 특히 다양한 분야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변호사업으로 확대함
 - 2008년 여성법관은 496명으로 전체 법관의 21.5%이고, 신임 법관 96명 중 여성이 67명(69.8%)였음
 -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10,500명이고 그 중 여성은 1,118명 (10.6%)이며 대형 법무법인의 신규 채용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30% 정도임

- 법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은 39.8%이며 대학원에 따라 20%대에서 50%대까지 여학생 비율이 다양함. 법학전문대학원 여학생들은 학력과 경력 면에서 우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비를 부담도 높은데 비해, 재학 중 진로개발 기회가 부족하고 졸업 후 진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

2. 정책의 추진방향

- 법학전문대학원 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별 인턴 프로그램, 선배 법조 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,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
-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여성변호사회, 지방변호사회의 여성 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인턴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대한변호사협회의 여성변호사회는 후배 여성 변호사 육성을 위한 사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나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한 편임. 향후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발전하고자 준비 중임
- 법학전문대학원 여학생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(개인별 진로개발 방법, 취업에 필요한 서류작성, 면접 노하우 등) 개발 및 보급

3. 정책효과

- 변호사업계에 여성 우수 인재 진출 촉진하고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음

▶ 주관부처 : 여성부(인력개발사업과), 여성부(교류협력과)
 ▶ 관계부처 : 교육과학기술부(인재정책기획과), 법무부(법교육팀)
